

# 殘唐五代演義考

金 鎮 世\*

## 1. 序

朝鮮朝 後期の 作品으로 推定되는 이 「殘唐五代演義」는 이른바 樂善齋本으로 現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도서관에 所藏되어 있다. 5권 5책인 이 작품은 한글 宮體 筆寫本으로 半葉이 16行이고 每行은 22字~29字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한글 小說이 大部分 그렇듯이, 이 作品도 作者와 創作年代, 그리고 現傳하는 筆寫本의 轉寫年代 조차 알 길이 없다.

本研究에서 筆者는 먼저 이 작품의 梗概를 紹介하고 다음에 이 작품의 連作關係를 살핀 뒤 이 作品에서 찾을 수 있는 指導者像을 考察해 볼까 한다.

## 2. 梗 概

唐나라 17代 희종 때다. 적장촌에 황종조라는 소금장수가 있었다.

아내 정씨와 함께 소림촌을 지나는데 한 아이가 그녀를 보고 어미라 하고는 한 길 누런 기운이 되어 사라졌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녀는 잉태하였고 25삭만에 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는 생김새가 피상하였고 너무나 못생겼으므로 그녀는 아이를 내다 버렸다. 얼마 후 종조가 그곳을 지나다가 그 아이를 다시 發見하고는 데려다 길렀다.

그는 자라서 武科에 壯元을 하였으나 얼굴이 못생겼다고 皇帝가 내쳤

---

\* 국어국문학과 교수

다. 화가 난 그는 天下를 얻겠다는 決心을 하였다. 그의 뜻이 담긴 詩를 본 皇帝는 그의 化상을 그려 그를 잡아들이도록 했다. 그 화를 피하여 黃巢는 장매사에서 숨어 지냈다. 그때 그는 한 伯女에게서 上帝의 칼을 받게 되었다. 그는 同志를 모으고 勢力을 糾合하여 百萬大軍으로 長安을 쳤다. 皇帝가 서기주(蜀)로 避하자 黃巢는 大位에 올라 國號를 大齊라 하고 開元을 金統 元年이라 했다.

皇帝의 御駕를 쫓던 주옥은 뒷쪽 宮에서 自決하려는 帝妹 목난영을 發見하고 그녀를 아내로 맞기로 했다. 옥이 皇帝를 잡아 齊王계 바치려 하자 난영은 그것을 反對하였다. 옥은 마음을 돌려 皇帝 앞에 나아가 사실을 말하였다. 그 功으로 그는 난영을 아내로 맞게 되었고 변양절도사에 任命되었을 뿐 아니라 全忠이란 이름도 받게 되었다.

서기주에 이르러 皇帝는 開元을 中知 元年으로 고치고 戰列을 가다듬었다. 그는 李克用을 請하여 兵馬大元帥의 직책과 金銀을 주어 그를 회유하였다. 진왕 이극용은 그의 청을 승락하여 그를 돕기로 했다.

진왕은 기연천이란 곳에서 周德威란 장수를 얻었고 비호산에서 安敬思란 장수를 만났다. 안경사의 비상함을 본 진왕은 그를 태부로 삼고 李存孝란 이름을 주어 先鋒으로 삼았다. 진왕은 석년관을 치고 하중으로 가면서 작진을 糾合하여 그 勢가 莫強하게 되었다.

변양절도사 주전충은 진왕과 칼을 뽑는 의견 충돌이 있을 후 이존효를 시험하려다가 그에게 봉변을 당하고 진왕을 버리고 달아나고 말았다.

황소의 부하장 葛從周가 李嗣源을 기습하고 계략으로 이존효를 죽이려 하였다. 그 사실이 밝혀지자 화가 난 이존효는 나가 싸워 크게 이겼다. 황소는 동생인 황규와 갈중주 등으로 싸우게 하였으나 이존효를 당하지 못하였다. 멸소산 아쪽에 이르러서 그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알고 스스로 조카인 황명에게 목을 주었다. 황명은 그 首級을 가지고 이존효에게 갔으나 진왕은 그의 不義를 생각하고 목을 베고 말았다.

진왕이 백성을 안무하고 이어 天子를 맞아 조하하고 開元을 당계 원

年이라 했다. 天子가 진왕에게 후한 상을 주자 진왕은 그것이 모두 諸將들의 功이라 하고 부하들을 치하였다.

변양절도사 주전충이 진왕을 초청하고 살해하려 했다. 주전충의 처 목난영이 그 사실을 진왕에게 귀뜸하였는데 그것이 탄로나자 그녀는 스스로 목졸라 죽고 말았다. 화를 면해 太原으로 돌아온 진왕은 원수를 갚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황소의 부하장들이 주전충에게 降服 歸順하자 朱全忠은 僖宗의 內官이자 實力者인 영자를 買受하여 梁王에 봉하도록 했다. 진왕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여러번 上表하였으나 때마다 영자는 그것을 默殺하고 皇帝에게 傳하지 않았다. 영자는 또 진왕이 叛하여 쳐들어오고 있다 하고는 지금 朝廷은 그를 對敵할 수 없으니 朱全忠을 부르자고 했다.

梁王이 된 朱全忠은 意氣揚揚하게 出軍하여 中途에서는 진왕의 軍이라 가장하고 노략질을 일삼으며 進軍하였다. 이때 영자는 진왕의 軍을 당할 수 없다 하고는 皇帝를 보계산으로 逃亡케 했다. 그리고는 皇帝를 孤立시켜 七日을 굶기고 마침내 죽이고 말았다.

진왕이 이존효를 데리고 곧 皇帝의 뒤를 따랐다. 朱全忠은 部下를 시켜 막으려 했으나 진왕과 이존효는 그들을 무찌르고 바로 보계산에 들어갔다. 皇帝를 보려하자 영자는 그들에게 기다리게 하고는 部下를 시켜 武器가 없는 틈에 그들을 殺害케 했다. 그러나 이존효와 왕은 그들을 다 죽이고 영자와 對面하게 되었다.

皇帝가 봉했다는 것을 알게 된 진왕은 영자에게서 사실을 自白받고 영자를 처치하고 四肢를 찢어 효시하는 한편 世子를 세워 開元을 龍紀元年이라 하고 號를 효종이라 했다.

청주절도사 왕탁이 朝會하고 돌아갈 때 朱全忠은 양원홍의 計巧를 받아 왕탁을 초청하여 자기의 아들과 왕탁의 딸로 結親之計를 꾸렸다. 그러나 왕탁은 이미 동리절도사 악언진과 結緣한 터이라 그 請婚을 거절하였다. 이에 朱는 칼로 위협하고 그를 죽이려 했다. 왕탁은 하는 수

없이 그것을 허락하고 돌아와 그 사실을 악언진에게 通報하였다. 악언진의 아들 조훈은 아내를 빼앗기고 참을 수 없다 하고는 劉知遠을 先鋒으로 삼았다. 유지원은 왕소저를 데려가는 우진과 싸워 그를 죽이고 그 가마를 앗아갔다.

朱가 군사를 내어 언진을 치나 유지원과 싸워 계속 패하였다. 그러다가 유지원과 朱가 對決했는데 달아나던 朱가 쏜 화살에 지원이 어깨를 맞았다. 그후 악언진은 城門을 닫고 진왕께 구원을 請하였다. 진왕이 그들을 걱정하고 있던 터이라 곧 發兵하자 朱는 존효가 왔음을 보고 그 만 변양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朱는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 오후로 하여금 太原에 叛케 했다. 오후의 兵이 음을 들은 진왕은 그것이 朱의 計巧인 줄 알았다. 처음 이사원을 先鋒으로 하였으나 勝負가 없으며 존효가 나아가 무찔렀다. 오병이 물러나자 진왕은 존효를 심주에 봉하여 보냈다.

이존효를 시기하던 姜君立과 李存信이 진왕에게 존효가 배반하였다고 참소를 하였다. 진왕은 곧 그를 죽이라 하였으나 유부인이 사원을 데리고 가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강군립과 이존신은 계교로 사원 母子를 황하를 막도록하고 존효를 죽이려 했다. 이때 존효는 天象을 보고 자신의 命이 다했음을 알고 스스로 힘줄을 끊어 죽음에 나아갔다.

존효가 죽었다는 消息을 들은 朱는 長安에 가서 이승상과 짜고 皇帝를 변양으로 遷都토록 종용했다. 皇帝가 변양으로 옮겼을 때 朱는 皇帝를 칼로 위협하여 몰아내고 自身이 皇帝에 即位했다. 開平 元年이라 하고 國號를 大梁이라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진왕은 울면서 長安을 바라고 祭를 올린 다음 起兵했다. 이에 악언진, 현전택 등이 계보산에 진을 치니 그 數가 40萬名이나 되었는데 하남, 청주, 교지, 운남 등 唐 宗室의 王들이 合勢하자 그 數가 百萬名에 다달았다.

진왕은 여러번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존효와 같은 忠臣을 잃은 것을 크게 후회했다. 진왕이 몹시 위급하게 되었을 때 존효의 魂이 와서 그를 구하자 그것을 본 왕언용은 기절하여 죽고 말았다.

진왕과의 싸움이 오래 되자 梁軍에게는 식량이 不足하게 되었다. 이에 왕언장은 우규로 하여금 朝廷에 식량조달을 要請케 했다. 우규는 途中에서 梁王이 불인하고 아들의 처와 놀아난다는 소문을 듣고 화를 입을까봐 되돌아오고 말았다.

진왕이 근심하고 있을 때 사원은 고사계를 부르자고 했다. 고사계는 존효에게 목숨을 얻은 후 산동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사원이 그곳에 가서 도움을 請하였으나 그는 나오고자 하지 않았다. 사원은 만일 그가 나오지 않으면 왕언장이 그곳에 와서 一戰을 벌이겠다 한다 하자 그는 분을 참지 못하여 나와 싸우겠다고 했다. 고사계가 왕언장과 싸우다가 언장의 창에 사계의 말이 찔려서 그가 땅에 떨어졌다는 消息을 들은 진왕은 기절하여 죽으니 享年 84 세였다.

왕언장이 梁王에게 糧草 支援을 要請하는 密使를 보냈으나 唐軍이 埋伏하였다가 그것을 빼앗으니 唐營에서는 軍糧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周우주는 梁主가 자기 아내와 놀아남을 보고 화가 치밀어 周先을 죽이니 아우인 우정이 또 우주를 죽이고 말았다. 이에 조정은 주우정을 세워 乾化라 했다.

이 消息을 들은 노왕 이걸은 기뻐하며 梁을 칠 計劃을 세웠다. 이때 淸安위, 석경당 등이 와서 돕겠다 했고 고사계의 아들 행주도 合勢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했다.

고행주가 왕언장의 장수들을 무찌르자 언장이 직접 나와 싸웠다. 그러나 그는 행주의 금퇴를 맞고 내달았으나 淸安위, 유지원, 석경당, 이사원, 이존옥 등에게 포위되었다. 그는 하는 수 없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목자르고 죽었다. 뒤이어 梁主가 당병에게 殺害되자 諸將은 진왕의嫡子인 이존옥을 세웠다. 後唐 莊宗皇帝라 하고 開元을 同光이라 했다.

唐主가 即位하여 洛陽으로 옮겼으나 그는 또 酒色에 빠져 음악을 일삼고 우인을 총애하며 賣官을 하니 不正이 횡행하자 민란이 일어나 호르는 살에 맞아 世上을 떠났다.

이사원이 낙양에 들어가 궁인의 노략질을 금지하고 唐主를 帝王의 禮로 葬禮를 하니 그를 세워 明宗皇帝라 하고 開元을 天成이라 했다.

長興 四年에 唐主가 병이 重하자 진왕 종영이 內室에 들어갔다 가 病勢가 위태함을 보고 그 위를 뺏고자 作變하였다. 이에 唐主는 이준길, 주항번으로 하여금 종영을 치게 했다. 이들은 궁중에서 기르고 있던 종영의 아들을 없애어 후환을 없게 했다. 唐主가 풍도에게 후사를 맡기고 봉하니 61세였다. 조정은 명종의 次子인 宗희를 세워 閔帝라 하고 開元을 應順 元年이라 했다.

이때 노왕 從珂가 叛하여 閔帝를 몰아내고 廢帝라 일컫고 開元을 清泰라 했다. 廢帝는 衆論을 받아 石敬瑭으로 육군위부사를 任命하고 유지원, 조영, 식영 등으로 主軸을 이루었다.

廢帝의 正宮 張氏는 누항에서 놀던 것을 데리고 온 것이라 하여 영녕 공주는 그녀를 禮待하지 않았다. 황후 또한 公主를 대접치 않아 그들은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廢帝는 怒하여 公主를 內宮에 가두고 말았다. 公主는 食飲을 전폐하고 지냈는데 이것이 궁녀 옥영을 통해 풍승상에게 전해졌다.

조희 때 큰 별이 동남쪽으로 멀어지자 폐제가 그 까닭을 물었다. 풍도는 공주의 간금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풀려난 공주는 그 사실을 석경당에게 알렸다. 화가 난 경당은 유지원과 상의한 끝에 먼저 公主를 그곳에서 脫出케 한 후 폐제를 치기로 했다.

공주는 폐제 앞에 나아가 觀音의 제자가 되겠노라 하고 낙양을 벗어났다. 공주가 그곳을 벗어나자 경당은 폐제를 攻擊했다. 이때 고행주가 나와 막았으나 경당은 결안과 合勢하였기에 당할 수가 없었다. 폐제는 和親코자 했으나 경당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다. 폐제는 張后가 出產

하였으니 7일의 말미를 달라고 했다.

장후의 잉태가 거짓임을 안 경당은 다시 공격하였다. 그는 성안의百姓들이 상할까봐 서필달과 內通하고 東門을 열게 했다. 酒宴中이던 폐제는 玄武門 樓上에 올라 불을 놓게 하고 타죽고 말았다. 장후가 삶을 구걸하였으나 유지원은 그녀를 殺害토록 했다.

경당이 唐朝 子孫으로 皇帝를 옹립하자고 제의했을 때 모두들 반대하였다. 걸안주도 경당이 皇帝가 되기를 원했다. 이에 석경당이 即位하고 國號를 大晉 高宗황제라 하고 開元을 天福이라 했다.

왕연정이 오, 월 등의 兵과 合勢하여 쳐들어왔다. 이때 유지원은 식영으로 하여금 그것을 치게 했다. 이 亂이 平定되자 또 이번에는 손비호가 二十萬名을 거느려 侵入했다. 이에 帝는 유지원으로 사홍조를 데리고 막게 했다. 사홍조가 적장 문부를 사로잡아 그 목숨을 살려주자 그는 그 은혜를 갚겠다 했다. 지원이 문부를 다시 살려 보내어 內應하게 한 후 곽위가 대래를 치고 금정란을 취한 후 다시 손비호를 치기로 했다. 곽위가 차례로 손비호의 장수들을 죽이니 손비호가 걸안을 움직여 진주군을 물리게 하였다. 그러나 유지원은 계속 공격을 하여 중영의 수급을 가지고 장안에 反師하였다. 皇帝는 크게 기뻐하고 지원을 분주절도사에 봉하여 太原을 지키게 하고 그 수급을 걸안에 보냈다.

걸안주는 大怒하여 지난날 敬石塘이 누구때문에 天子가 되었느냐고 하면서 中原에 들어가 다른 姓으로 帝를 삼겠다 하였다. 이후 帝는 병이 되어 지원을 불러 太子인 증예가 나이 아직 어리니 우선 皇姪 중귀를 세우되 증예가 자라거든 位를 정하라 하고 모든 公卿들은 그 증인이 되라 하고는 숨을 거두니 天福七年 正月이고 나이 57세였다.

중귀를 세우고 開元을 開運이라 하고 걸안에 通報하니 걸안주는 稱臣하지 않았다 하여 大怒하고 힘으로 겨루자 했다. 걸안주가 起兵하여 太原을 쳤으나 連敗하고 말았다.

그후 晉主는 國境을 不治하고 음주 취락하자 걸안이 다시 쳐들어왔다.

大敗한 晉主는 稱臣하기를 꺼려 崔杼에 불을 지르고 뛰어들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는 수 없이 그는 魏安에 항복서를 보내니 魏安주는 晉主와 太后를 奉天사에 가두었다. 이때 동방 閔昱가 鋒起하니 조한으로 魏安사를 任命하여 洛陽에 留守케 하고 자신은 故國으로 돌아갔다.

북명왕 유지원이 하동을 진수하고 있었는데 諸將들이 그를 尊號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晉主가 北遷하였다는 消息을 듣고 天下에 君主가 없으며 지금이야말로 天下를 平定할 者は 우리 君主 뿐이라고 우겼다. 지원은 하는 수 없어 그 衆議를 받아들였다. 그는 國號를 漢이라 하고 開元을 乾祐라 했다. 忠直한 臣下를 가려서 쓰매 魏安가 侵入치 못하였으나 그는 痼疾으로 他界하고 말았다. 在位 二年에 54 세였다. 太子 승우를 세워 隱帝라 하니 芳年이 17 세였다.

은제가 即位後 날로 교자하여 음악을 즐기며 嬪에게 금포옥대를 주니 臣下들의 不滿이 컸다. 은제가 忠臣들을 죽이자 郭威가 出軍하였다. 은제가 敗走하다가 殺害되고 간신들은 모두 自決하였다. 郭威는 太后께 君主를 세울 것을 要請하였다. 그녀가 은제의 아우 하동절도사 유인을 지명하였다. 曄위가 그를 데리러 갔는데 그곳 장수들이 모두 曄위를 옹립하며 太后도 하는 수 없이 그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漢은 二帝 四年으로 끝났다.

郭威가 即位하여 後周의 太祖皇帝라 하고 開元을 廣順 元年이라 했다. 이때 유송(劉崇)이 晉陽에서 일어나 北漢이라 했다. 周主 郭威는 病이 重하여 進왕에게 遺言을 남기고 죽으니 나이 53 세였다.

進왕 영을 청하여 世宗皇帝라 하고 開元을 顯德 元年이라 하니 北漢主 劉崇이 원수를 갚을 機會가 왔다 하고는 魏安에 請兵하여 싸움을 들우었다. 그래서 世宗은 曄의 智와 勇을 認定하고 指揮使로 任命하였다. 이때 風雨가 大振하여 周太祖의 陵上에 있는 松栢이 부러져서 南門 밖에 떨어졌다. 그후 世宗은 病이 되어 봉하니 39 세에 在位 六年이

었다.

太子 宗訓을 세워 恭帝라 하고 조광운을 귀덕절도사에 封하였다. 조광운이 자주 功을 세우더니 하루는 世宗의 협중에서 정검이 天子가 되리라는 글을 보고는 諸將이 主上의 나이 어림을 일컬어 정검을 天子로 추대하였다. 이때 광운은 첫째, 太后와 恭帝는 내가 복면하여 섬기던 바이니 狂치 말라. 둘째, 公爵大夫는 내 同僚니 침노치 말라. 그리고 세째는 富賈를 노락지 말라는 등 세 가지 條件을 提示하였다. 못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受諾하며 광운은 帝를 허락하였다. 開元을 進청 元年이라 하고 國號를 宋이라 했다. 華山에 사는 隱士인 진단이 宋이 周를 代身하였으니 이로 조차 天下가 定하리라고 했다.

### 3. 連作問題

이 작품은 이른바 連作小說 系列에 속한다. 「華山仙界錄」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보인다.

이제 턱히 휘휘하여 걸안이 크게 작난하고 진한이 망하게 되미 주턴지 남국 하니 도공조 광운 등이 주 턱조를 붓드러 턱하를 정호미 남국스연은 잔당녕의 에 기록하고 위공의 본스적은 본던 턱슈석의 히비이 기록한고로 츠던서는 위 현의 스덕만 기록하고 다른 스연은 번다불거한다. <卷2>

남송황제 도광운의 턱하 었던 턱후스덕이 남송연의의 세세히 기록한 고로 츠던의 지리하여 새히다. <卷 21>

위 두 기록에 依하면 「華山仙界錄」은 「泉水石」에서 이어졌고 또 「華山仙界錄」은 다시 「殘唐演義」와 「南宋演義」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結局 이 「殘唐五代演義」는 「泉水石」에서 「華山仙界錄」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殘唐演義」와 「南宋演義」로 連結된 이른바 三部作 連作小說이 되는 셈이다.

## 4. 內容 考察

## 1. 章回體

5권 5책인 이 「殘唐五代演義」는 章回體 小說이다. 첫째 卷은 “당턴  
즈기라퀴스 적장촌황산출신” “적장촌황소출신 황소장미소유완” 등 8회  
로 되어 있고 卷二에는 “니존효녀살스장 니존효쇼폐영풍창” “터위도장  
멸황소 황소덕소산즈문” 등 5회로 되어 있고 卷三에는 “뉴지원대전낭  
병 니진왕동디회위” “유운계립오후반 존효등턴왕활착” 등 4회, 卷四에  
는 “언장지살고스계 진당지금부도토” “도패입변광군낭 군신삼시쇼랑전”  
등 4회 그리고 마지막 卷인 卷五에는 “상유완현취성 뉴지원부명출스”  
손비호괴슈털농산 소홍도활착손비호” 등 3회로 되어 있다.

## 2. 史實性

이서의 序에 漢왕호므로써 건무 삼년을 못쳐 광평 원년이라 하니 이 序는  
경조세라 〈卷一〉

이것은 작품 本文의 기록이다. 그러나 사실(史實)은 건무가 아니라  
乾符이다. 그리고 광평은 실은 廣明이다. 그러나 乾符 三年은 876AD  
(丙申)이고 廣明 元年이 아니다. 廣明 元年은 880AD(庚子)이다.

집이 심자하니 고조 태종이 동탕서제하시며 남정북벌한사 텃하를 일통한사  
십칠세의 전하엿거늘 이제 소적의 아인 비 되야 사적이 도석의 급하미 이시니  
하면목으로 디하의 가 비오리오……던 왈 텃하 일흐문 텃운이 순하야 일이 그  
러케 하니라 요사이 서귀워 가시의 동요한디 경조년년일월고 산동과목중중  
결……일노써 의논한진디 경히 텃운이 변하리 응하야시니 경조년년 일월고논  
페하 건무 원년이 경조년이오 또 기하야 광평이라 하니 명조는 일월이오 올히  
턴하를 일호니 엿지 고이하미 아니며……〈卷一〉

윗 本文에서도 大年號와 그에 따른 干支 등이 틀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작품의 作者가 무식해서 틀렸다가 보다는 작품임을 考慮하고 그런 것들을 虛構化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해석함이 좋을 듯하다.

### 3. 人物描寫

도취 왕구연 적장춘의 일인이 이시니 성명은 황종피라 세세로 소곰장스물 위업호더니 안해 덩시를 취호야 집의 도라올시 길히 소림촌으로 지나더니 혼적은 아히 몸의 누른 옷술 남고 사히 내려 덩시드려 어미라 혼번 브르고 문득 화호야 혼 길 누른 귀운이 되야 덩시 틈으로 드더니 인호야 덩시 잉틱호야 이십 오삭만의 남야를 심호니 지나며 형용이 고이호야 신장이 이척이오 눈섭이 일자로 빛겼고 엄니 들히 나고 코의 세 굽기 있고 왼볼의 살빛치 비암이 있고 울호야 볼의 늑타귀 흑이 있고 등의 팔과문이 있고 가슴의 칠성이 도닷더라 종피 보고 경회호야 기천의 브리니……〈卷一〉

黃巢의 懷孕과 出生 直後の 狀態를 描寫한 것이다. 많은 경우 非常人의 懷孕는 夢兆를 通한 豫示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작품은 그것이 아니고 눈 앞에 形象이 나타나고 있다. 또 懷孕期間도 13 朔, 길어야 15 朔으로 나타나곤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자그만치 25 朔이란 오랜 時間을 設定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英雄性을 띤 非常人은 으레 그 容貌가 뛰어나거나 美麗한 것으로 描寫가 되고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와 反對로 新生兒의 모습이 몹시 醜하고 畸形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點은 다른 小說에서는 보기 힘든 一面이다.

왕이 문왕 네 엇던 사름인다 기인 왕 너 일성 어미만 있고 아비 업스니 일노빠 성시 업스니 왕왕 사름이 텃더 음양을 인호야 나느니 엇지 어미만 있고 아비 업스리오 기인 왕 너 어미는 취시나 나히 이팔의 사름을 조초지 아났더니 일일은 모든 조리로 더브러 寧구곡의 와 놀며 들나물을 리더니 황능의 들사름 여덱이 셋거늘 조미 회룡왕 우리등은 다 사름을 조초거니와 네 홀노 지아비 업스니 우리 너를 위호야 혼 장부를 7르치미 가호나 뉘 왕 어니 사름고 중인 왕 이 들사름 중의 네 스스로 고히라 뉘 왕 넌너는 티부를 아니호느니 너 광주리를 더러 맞느니로 결호야 부워되리라 호고 더지니 들지 석인이 마즌

지라 되 나아가 날오디 석인야 석인야 베 니 장취 되야시니 다른 맛음을 먹지 아니리라 하고 도라왔더니 당야 이경의 석인이 분명이 와 어미로 더브러 부취 되야 인호야 조식 비니 부취 알고 어미를 쳐준디 어미 실노베 고향디 밋지 아니하고 저 니쳤더니 어미 갈 디 업셔 혼 굶기 드러가 사다가 날을 나흔 지 칠 년의 문을 의지호야 비러 먹더니 혼 무덤 ㅈ의 다드라 석인이 다 업더져 머리 부러 져거늘 어미 날노베 머리를 평안이 호라 호야 평안안조로 성을 삼고 드 디어 일흠을 경시라 하고……〈卷一〉

이것은 安敬思(改名 李存孝)의 出生과 關聯된 내력이다. 그는 正常的인 夫婦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모친이 黃陵가의 돌사람과 인연을 맺고 태어났다고 했다. 이것은 정히 傳說的인 것이다. 그런데 그가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보자.

왕이 형제 위급호미 곧오디 석일 번낭부회호적 내 날을 구호였더니 내 이제 슈유에 죽게 되였거늘 냉혼이 아롬이 있느냐 언필의 동남 다히로셔 일진 바람이 니러나 비호기를 모라오며 기하의 존효의 얼굴이 사라실 적 ㅈ트여 은은이 마상의서 혼혈삭을 빗겨시니 왕이 크게 웨디 내 아히 용남공은 샅니 와 날을 구호라 다만 보니 니존효의 인티 당선대티 월 내 예셔 기드런디 오르니 간적은 듯지 말나 언용이 대경호야 소리틀 지르고 물게 논려디 귀결호야 죽으니 석에 존회 운무중의서 웨디 노부아 내 서로 더브러 부ㅈ의 정을 완전호리라 낭병 이 이제는 세로 귀호리니 아히 이제 니별하고 하눌노 가난이다 왕이 머리를 두로혀 보니 다만 바람이 몹고 돌이 붉오디 존효는 보지 못하고 홀노 왕 언용의 죽음이 자히 잇더라. 〈卷四〉

李存孝는 忠誠스러운 臣下였다. 그는 죽을 때에도, 비록 그것이 奸臣의 모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君主가 죽음을 命하였기에 그는 그 命을 어기지 않고 죽어간 人物이다. 그러한 臣下였기에 그는 죽어서도 그 靈魂이 君主를 돕고 있는 것이다.

以上の 몇 가지 例를 통해 볼 때 이 작품의 人物描寫는, 凡人들에 대해서는 平범하나 活動的인 人物에 대해서는 傳奇的인, 傳說的인 誇張이 심하다 하겠다.

## 5. 主 題

이 작품에서 帝位를 잃는 첫번째 경우는 회종의 경우이다. 그 까닭은 그는 忠臣의 말을 듣지 않고 奸臣에게 휘말린 때문이었다.

데 두던의 울나 디의정제 호고 군민 응위호를 바라보고 좌우드려 문왈 뷘 감히 기록호 췌 이서 진병을 물니치리오 녕지 왈 신이 호 제피이시니 다만 군신이인만 일고 폐하의 비빙 군신이 다 물러간 후 다만 폐하와 신의 계교를 덩 호디 던동 던호를 불너 칼 집고 문을 직회여 일인도 천즈히 드려오지 못호게 호야 만일 위령재 잇거든 참호를 거시니이다 데 주언을 조츠 힘호니 원너 이 도척이 회종을 속여 보제산중의 드러가 좌우를 녕지 다호령호야 니외를 통치 못호게 호는지라 비록 진선코져 호는니 이신들 다 녕즈의 막는 배 되야 데 음식이 다 쓴혀져 칠일이 되미 눈이 다 누르고 코히 검어 반싱반스호야 이에 불너 왈 녕즈위경아 석일 낭 무데 귀성의셔 곤호야 밀슈로 명을 니어시니 어느 곳의 물 혼술을 어더 나의 명을 살오라 녕지 왈 이 늙흔곳의 무슴 물이 이시리오 데 산녕의 안즈 양턴탄왈 하늘이 날을 꿀머 죽게 호는도다 드디여 사히 업더져 죽으니 췌 문덕 하 뉴월이라 <卷二>

소종의 경우도 그렇다. 그는 尙書 주간과 左僕射 오습의 忠諫을 듣지 않고 승상 이영의 말에 感하여 마침내 나라를 잃고 말았다.

데 군문의 나와 술위물 탈시 가전의 이인이 꾸러거늘 보니 이는 삼서 주간과 좌복야 오습이라 데 문왈 무슴 일이 잇는노 주간 왈 폐히 천도호시를 듯고 간호려 왔는이다 데 디로 왈 니 변냥 가기를 즐겨호거늘 뷘 감히 막으리오 무스로 쓰어 동문 밧겨 버히니 빅성이 눈물 아니 너리 업더라.

온이 승상 니영을 청호여 닐오디 내 쇼종을 히호고 황데 되고져 호니 엇더호 노 니영 왈 가히 췌물 타 힘호리니 명일 설연호고 대를 청호디 호환을 새위의 미복호고 친히 칼 츄고 던의 울나 턴하물 식취호야 주지 아니호거든 문득 죽이라……온이 나와 오빅 철기로 던 밧겨 미복호고 데를 청호여 문무 권판이 츄베로 술을 나오더니 슈순의 니르려 주온이 칼을 띄고 던의 오르니 좌위 경아호거늘 주온이 술을 굶치라 호고 닐오디……턴즈는 만민의 취 되여 턴하물 다스리느니 저 혼용지군을 머무러 무어시 브리오 가히 디위를 니게 사양하라 <卷三>

데 썰며 디답지 못하다가 혈누를 뿌려 왕 조종의 탄원 엿지 오날 와 폐홀 줄 알리오 덤이 하면복으로 구천의 가 선대홀 뵈오리오 호고 골오티 덤이 텃하로 써 낭왕과 전호는니 힘허 잔명을 머무러 써 텃년을 증게 한다……데 이에 양섭을 명하여 도서를 지어 낭왕과 선위하니 <卷三>

君主가 不義之心을 내어 나라를 보살피지 아니하고 人倫을 어지럽게 하다가 나라를 잃는 경우도 있다.

유우귀 우녕으로 너브러 성야로 낭귀성 동화문의 가 성지를 청홀시 석의 낭귀 불인지심을 니여 으부 가시를 드려 음쥬 친압하며 입문을 어즈러이더니 흘연 보호디 이위 텃해 보계산으로셔 와 폐하의 명을 기드려는이다 낭귀 급히 불너 드러오니 이쥬 낭귀 술이 취호였는지라 가시의 일을 다 니저브리고 유우쥬를 보르니 우귀 드러와 보미 좌의는 낭귀 안고 우의를 기쳐 가시 안쥬는지라 우귀 매매 왈 부도흔군야 만성인민이 내 말을 니르디 오직 왕언장이 고지듯지 아니호고 말니더니 금일의 과연 울토다 호고 칼홀 싸히 나아오거늘 낭귀 입의 일이 누설호 줄 알고 텃의 느리니 우귀 느는드시 썰아가 쇼중 폐호던 초랑텃의 가 니르려는 온이 대규 왕 세간의 엿지 아비를 죽이리오 우귀 답호디 너는 신하로서 엿지 님군을 죽이더노 온이 미쳐 피쳐 못호여셔 유우의 칼의 머리 썰러지니 우녕이 칼홀 들고 썰아오다가 우귀 아비를 죽여시를 보고 크게 호는 소리를 지르고 우쥬를 버혀 피 싸히 호르니 이 텃상의 신탈 님군을 죽이고 아들이 아비를 죽이고 아이 형을 죽이니 실은삼신 조랑텃이라 호더라<卷四>

君主가 酒色에 빠지고 음악을 일삼으며 우인을 총애하니 매관매직이 橫行하고 不正이 난무하여 民亂이 일어나 나라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

당귀 낭을 멸호브르브터 쥬익의 싸져 전혀 음악을 일삼으니 혹 스스로 분목을 그려 우인으로 거브러 한가지로 회통하니 우인이 보르기를 니텃해라 호더니……당시의 모든 우인이 텃익의 모다 출입호야 궁인을 업슈히 너기니 궁인이 질분호되 감히 말호 재 업고 또 호는 서로 부탁호야 온락을 님는 자의게 남쳐호야 국정과 사름을 해롭게 호고 조로 전텃호야 민년을 쥬브르니 상해 조원호고 인심이 니반호지라……시의 쥬슈운이 괴병을 거느려 박피 이시되 브르는 소리 들니지 아니니 당귀 친히 인병호야 무림 아리 서시니 이윅고 난병이 흥도문을 불지르고 일시의 드러가니 초시의 군신숙장이 나 갈을 버셔 도망호고……당귀 호르는 살을 마자 슈유에 줄호니……<卷四>

## 6. 結

이 「殘唐五代演義」는 조선조 후기에 와서 나타나는 이른바 連作小說이다. 連作小說로는 드물게 보는 章回體로 되어 있다. 凡常人的 人物描寫는 다른 작품들과 다름이 없으나 特殊人的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黃巢의 出生이나 李存孝의 경우는 그것이 傳奇的乃至는 傳說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작품의 主題는 指導者像에 있다고 하겠다. 모름지기 한 나라를 이끄는 指導者란 우선 그 視野를 넓히고 言路를 開放하여야 하고 人倫을 어지럽히는 不義之心을 경계해야 하고 酒色에 빠지지 말아야 淫惡을 물리치고 社會의 名分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